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가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 자신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인균¹, 이연실^{2*}

¹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²화성외과학대학교 의료복지학과 교수

Effects of Social Parental Role and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Childbirth Plan and Parent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Confidence

In-Kyun Seo¹, Yon-Sil Lee^{2*}

¹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owon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Medical Welfare, Hwaseong Medi-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가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역할 자신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사전 협조 된 D광역시 남·녀 고등학생 614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Baron &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부모역할 자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부모역할 자신감을 정(+)의 영향으로 매개하여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키워드 : 청소년,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 부모역할 자신감, 출산계획, 자녀양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social parental role and attitude of prospective parents recognized by adolescents on childbirth plans and child rear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role confidence.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614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D Metropolitan City who cooperated in advance, the study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Baron & Kenny's three-step regression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parental role and attitude as prospective parents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 positive (+) effect on birth plans and child rearing.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parental role and attitude as prospective parents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 positive (+) effect on parental role confidenc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parental role and attitude as prospective parents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 positive (+) effect on childbirth plans and child rearing by mediating parental role confidence as a positive (+) effec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hoped that it will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low birth rates.

Key Words : Adolescents, Social Parental Roles and Attitudes, Parental Confidence, Birth Plans, Child Rearing

*Corresponding Author: Yon-Sil Lee (ezup97@daum.net)

Received August 3, 2024

Accepted October 20, 2024

Revised September 3, 2024

Published October 28, 2024

1. 서론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국가적 과제로 비견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는 매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한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화는 인구학적 특성상 상당 기간 동안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결정하는 출산의 문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회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에 있어 학계의 의견은 일치된다[2].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출산률 저하는 결국 젊은이들의 예비부모로서의 사고와 인식 및 결혼과 자녀 출산·양육에 관한 의식이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률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실업, 경기 불황, 주택가격 상승과 같은 사회시스템 개선이 핵심요인이지만, 젊은 세대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념으로 인한 결과 값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am & Jung[3]은 저출산 현상 관련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근본적인 출산과 양육, 자녀 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예비부모라고 볼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실제 행동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되며[4],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역시 부모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5].

따라서 예비부모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같은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에 대한 배경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Lee et al.[6]은 학생 시기에 예비부모로서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현대사회 예비부모의 사회적 역할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부모역할, 자녀양육, 출산계획 등 보다 구체적이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청소년기나 젊은 청년들이 결혼 전 부모역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준비된 부모는 각자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역할 적응과 문제해결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7]. 특히 청소년기 고등학생에 대한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 태도나 인식을 살펴보고 관련 변인을 탐구할 필요성은 그간 이루어졌던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 변인 관련 선행연

구[4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청소년기에 부모의 책임을 느껴보게 하는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확산 작업은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미래의 예비부모들은 양육 및 출산에 관한 수많은 문제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며, 부모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8]. 바람직한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 일부 연구[9]에서는 부모됨 욕구가 구체화되는 고등학생 시기가 적합하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태도가 출산계획 및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선행연구가 양적으로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의 연구에서 예비부모의 사회적 역할태도와 출산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관련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직접적 변인은 아니지만 예비부모로서의 부모역할이 결국 그들의 출산의도나 양육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예비부모의 부모역할을 살펴본 연구[6]에서 예비부모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부모역할인식은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과 관련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7]에서도 예비부모가 될 이들에게 사회적 예비부모역할을 확인하고, 그들의 출산의지를 높이는 전략 구축을 위해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말하였다. Cho & Ahn[10] 또한 예비부모역할과 출산 및 자녀양육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Je & Park[11] 역시 미혼남녀의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적 부모역할인식은 결국 출산, 양육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주목할 점은 한국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12,13]에서 예비부모로서의 부모역할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자녀양육에도 어려움을 주거나 양육에 관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부모역할의 책임감과 태도를 수용한 이들은 실질적으로 부모가 된 후 자녀양육에 긍정적 작용을 하며, 부모역할 자신감이 높은 부모는 결국 자녀양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한다[13]. 예비부모와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Kim et al.[14]은 원가족에서 긍정적인 사회화 경험을 한 부모의 태도나 부모역할 자신감이 높은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더 많은 참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는

예비부모들의 사회적 역할과 태도가 그들의 출산, 양육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여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밝고 건강한 부모역할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예비부모의 사회적 역할 태도의 긍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모의 사회적 역할태도가 결국 향후 자녀출산과 양육과의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또한 주요한 작용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변인 간의 관련성과 흐름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 부모역할 자신감 등은 향후 출산계획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상황에서 언제든 부모가 될 수 있는 청소년기 사회적 부모역할과 관련된 변인을 다룬 연구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가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와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 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 자신감의 매개효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부모역할을 앞둔 이들의 출산이나 양육, 부모 역할에 대한 태도와 자신감을 살펴보기 되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자 향후 저출산 관련 정책적 지원에 있어 주요한 이론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2.1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부모 역할과 태도'를 살펴본 연구[15]에서 활용된 변인으로 현 시점의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부모역할과 태도가 무엇인지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변인은 우리 사회를 위해 부모역할은 어때야 하며, 부모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및 보편적인 측면에서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부모의 사회적 역할은 비슷한 변인 명으로 혼동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모역할이나 부모양육태도와는 다

른 의미로 구분해야 한다. 자녀를 잘 양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라고 정의되는 부모역할이나[16]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양육태도[17]는 다른 의미이다. 이처럼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부모역할 인식과는 다른 개념이며, 태도 역시 인식과는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조작성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우리 사회를 위해 부모역할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부모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만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 변인만을 살펴본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비교논의 및 고찰하는 과정에서는 비슷한 개념인 부모역할 인식 및 일반적인 부모역할 태도 등으로 빚대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태도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는 최근의 연구들에서 부모의 사회적 역할 태도와 출산 및 자녀양육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부모가 될 예비부모들이 습득한 부모의 역할은 자신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나타나지는 자녀양육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6], 부모의 역할에 대한 예비부모의 인식은 그들의 자녀출산 및 양육관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18].

2.2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 인식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은 향후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할 것인지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 및 부담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19]. 출산계획과 자녀양육에 관한 인식은 주로 예비부모의 출산의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Kim & Seon[20]연구인 '미혼여성들의 결혼 및 가족의식 조사'와 고등학생들의 출산의식을 측정한 연구[21]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출산의식은 자녀 가치관을 주로 다루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22] 자녀 가치관을 포함한 자녀 필요성, 저출산 문제 인식과 일과 가정양립에 대한 견해 등을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 더 자주 정의된다[21,23]. 즉, 출산의식을 구성하는 문항에서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관한 인식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어 청년의 결혼 출산에 관한 의식변화가 주목받게 되었고[24]. 이는 대학생이나 청소년과 같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종 활용되게 되었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대해 살펴볼 것을 제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출산계획과 자녀양육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후속 자녀출산 계획을 측정한 연구[25-27]가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출산 계획과 양육을 살펴본 연구[28,6]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부모의 자녀출산 계획과 양육책임 및 부담을 포함하는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 척도를 활용할 것이며, 이는 예비부모의 역할과 태도와 같은 인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2.3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역할 자신감

부모역할 자신감은 국외에서 Sanderson과 Thompson [29]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모역할 자신감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역할 자신감이 높은 아버지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습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실질적으로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역할 자신감이 자녀양육 및 출산계획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예측한다. 그 외에도 Dorsey와 그의 동료들[30] 역시 부모역할 자신감이 부모의 양육참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강조하는 등 부모역할 자신감과 출산, 자녀양육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역할 자신감은 스스로 부모역할에 대해 자신감과 기술 및 능력을 지녔다고 여기며, 자녀를 잘 기를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측정하고 있다[31]. 이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모역할 만족도[32]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변인이다.

국내에서도 부모역할 자신감 관련 연구들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고령 출산모의 부모역할 자신감을 살펴본 연구[31]를 필두로 하여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모역할 자신감[33]을 비롯하여 대학생 및 청소년과 같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역할 자신감 연구[34,35,13] 등 다양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점차 발표되고 있다. 특히 부모역할 자신감은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문제에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변인 이기에[13] 향후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 인식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36]. 더불어 부모역할 자신감은 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 해당 시대 부모역할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볼 수 있다[31,14]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자신감을 중심으로 예비부모의 사회적 역할태도와 함께 출산, 자녀양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가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역할 자신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고,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Fig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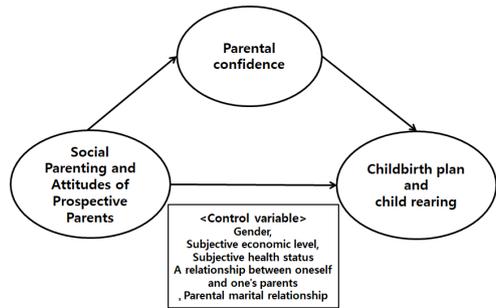


Fig. 1. Model of study

3.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청소년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청소년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부모역할 자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청소년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부모역할 자신감에 정적(+)으로 매개하여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대상

본 연구는 미래 예비부모로 볼 수 있는 청소년기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D광역시

에 소재한 일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18세의 1, 2학년 재학생으로 편의추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해당 고등학교 1, 2학년의 각 학급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 진행의 동의를 득한 후 진행되었다.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동의 후에도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하거나 연구참여의 철회가 가능함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연구참여에 동의한 64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26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614명의 설문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3.4 연구도구

3.4.1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

청소년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도구는 Shin[37].이 고등학생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Kim[15]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아이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잘 기르는 것은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길을 가다가 위험한 놀이를 하는 아이를 보면 남의 아이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아이를 보면 다가가서 타이르는 것이 좋다' 등의 문항들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Likert) 척도로 점수는 최저 23점부터 최고 115점까지 분포하며,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747 이었다.

3.4.2 부모역할 자신감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도구는 Gibaud-Wallston et al.[3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척도를 Kang[31]이 수정하여 사용한 부모역할자신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면 아이를 돌보는 일은 매우 쉬워진다', '나는 만족스럽게 아이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잘 다룰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 등의 문항들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Likert) 척도로 점수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 분포한다. 역재점 문항에 대해서는 역산처리하여 계산하였다.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역할 자신감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12이었다.

3.4.3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

청소년이 인식하는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도구는 Kim & Seon[20]이 '미혼여성들의 결혼 및 가족의식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4]이 '전국 결혼 출산 동향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Lee[19]가 활용한 출산의식 척도 중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 척도를 사용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자녀를 더 많이 낳고 싶다', '자녀양육의 책임은 부부공동에게 있다', '외동은 외롭기 때문에 2명 이상이 좋다' 등의 문항들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Likert) 척도로 점수는 최저 5점에서 최고 3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출산에 대한 계획과 자녀에 대한 양육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66이었다.

3.4.4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주관적 경제수준(상, 중, 하), 주관적 건강상태(상, 중, 하),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좋음, 보통, 좋지 않음), 부모의 부부관계(좋음, 보통, 좋지 않음)에 대해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3.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에 대한 정규성 가정을 검증하기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 간의 영향과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Baron & Kenny[39]의 3단계 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하였

다. 또한 부모역할 자신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53.9%(331명), 여자가 46.1%(283명)로 나타나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중 76.1%(467명), 상 19.5%(120명), 하 4.4%(27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상 56.0%(344명), 중 41.0%(252명), 하 2.9%(1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는 좋음 79.5%(488명), 보통 17.8%(109명), 좋지 않음 2.8%(17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부부관계는 좋음 75.4%(463명), 보통 20.0%(123명), 좋지 않음 4.6%(2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name	Sortation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an	331	53.9
	Woman	283	46.1
Subjective economic level	Upper	120	19.5
	Middle	467	76.1
	Lower	27	4.4
Subjective health status	Upper	344	56.0
	Middle	252	41.0
	Lower	18	2.9
A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one's parents	Good	488	79.5
	General	109	17.8
	Bad	17	2.8
Parental marital relationship	Good	463	75.4
	General	123	20.0
	Bad	28	4.6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의 평균은 3.450점 표준편차는 .390으로 나타났고, 부모역할 자신감의 평균은 3.346점 표준편차는 .610로 나타났다.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의 평균은 3.472점, 표준편차는 .473로 나타났다. 각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왜도 및 첨도 결과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왜도는 절대값 2 미만, 첨도는 7 미만으로 나타났고, 이에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Variable name	Min	Max	Ave	Sta	Ske	Kur
Social Parenting and Attitudes of Prospective Parents	1	5	3.450	.390	.435	1.494
Parental confidence	1	5	3.346	.610	-.095	.347
Childbirth plan and child rearing	1	5	3.472	.473	-.241	1.570

1) Min=Minimum value, Max=Maximum value, Ave=Average, Sta=Standard deviation, Ske=Skewness, Kur=Kurtosis

4.3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부모역할 자신감과 관계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r=.363, p<.001$),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과의 관계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r=.424, p<.001$). 또한 부모역할 자신감은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과의 관계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r=.245,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Key Variables

Variable name	Social Parenting and Attitudes of Prospective Parents	Parental confidence	Childbirth plan and child rearing
Social Parenting and Attitudes of Prospective Parents	1		
Parental confidence	.363***	1	
Childbirth plan and child rearing	.424***	.245***	1

*** $p<.001$

4.4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가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역할 자신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가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역할 자신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Baron & Kenny[39]의 3단계 회귀분석과 Sobel test[40]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 시 주요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다. 공차한계는 .750~.994, 분산팽창계수는 1.006~1.334로 나타나 기준치인 공차한계 0.1 이상, 분산팽창계수 10.0 미만을 충족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aron & Kenny의 1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청소년

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가 종속변수인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기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1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beta=.430, p<.001$). 이는 청소년기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가 높을수록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 인식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의 모형설명력은 19.2%이고, F값은 25.254($p<.001$)로 나타났다.

Baron & Kenny의 2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청소년

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가 매개변수인 부모역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부모역할 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2가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beta=.335, p<.001$). 이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단계의 모형설명력은 15.5%이고, F값은 19.804($p<.001$)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유의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되었다.

Table 4. The Effects of Social Parenting and Attitudes of Prospective Parents on Childbirth Plan and Parent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Confidence

Baron & Kenny 1 step analysis		dependent variable n=614					
		parental confidence					
		B	S.E.	β	t	tolerance	VIF
Constant		13.170	2.879		4.575***		
Control variable	Gender (female)	-.323	.455	-.026	-.710	.994	1.006
	Subjective health status	-1.118	.425	-.102	-2.629**	.919	1.088
	Subjective economic level	-.251	.510	-.019	-.492	.908	1.101
	Parental marital relationship	.984	.477	.088	2.062*	.755	1.325
	a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one's parents	.659	.531	.052	1.241	.774	1.292
Independent variable	Social Parenting and Attitudes of Prospective Parents	.228	.026	.335	8.869***	.967	1.035
$R^2=.164$ Adj $R^2=.155$ Model $F=19.804$ ***							
Baron & Kenny 2 step analysis		dependent variable n=614					
		Childbirth plan and child rearing					
		B	S.E.	β	t	tolerance	VIF
Constant		7.717	1.322		5.836***		
Control variable	Gender (female)	-.364	.209	-.063	-1.740	.944	1.006
	Subjective health status	-.086	.195	-.017	-.438	.919	1.088
	Subjective economic level	.695	.234	.113	2.965**	.908	1.101
	Parental marital relationship	.090	.219	.017	.411	.755	1.325
	a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one's parents	.360	.244	.061	1.475	.774	1.292
Independent variable	Social Parenting and Attitudes of Prospective Parents	.137	.012	.430	11.636***	.967	1.035
$R^2=.200$ Adj $R^2=.192$ Model $F=25.254$ ***							
Baron & Kenny 3 step analysis		dependent variable n=614					
		Childbirth plan and child rearing					
		B	S.E.	β	t	tolerance	VIF
Constant		7.092	1.339		5.298***		
Control variable	Gender (female)	-.348	.208	-.061	-1.673	.993	1.007
	Subjective health status	-.033	.196	-.006	-.167	.909	1.100
	Subjective economic level	.707	.233	.115	3.028**	.908	1.102
	Parental marital relationship	.043	.219	.008	.198	.750	1.334
	a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one's parents	.329	.243	.056	1.351	.772	1.295
Independent variable	Social Parenting and Attitudes of Prospective Parents	.126	.012	.396	10.132***	.856	1.169
mediating variable	Parental confidence	.047	.019	.101	2.555**	.836	1.196
$R^2=.208$ Adj $R^2=.199$ Model $F=22.776$ ***							

1) Dummy variable: Gender (male=0, female=1)

2) * $p<.05$, ** $p<.01$, *** $p<.001$

Baron & Kenny의 3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청소년기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와 매개변수인 부모역할 자신감이 종속변수인 출산계획과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기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beta=.396, p<.001$)와 부모역할 자신감($\beta=.101, p<.01$)은 모두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3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수인 부모역할 자신감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도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3단계 회귀분석에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에 관한 영향력은 2단계 회귀분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였으며($\beta=.430, \rightarrow \beta=.396$), 모형의 설명력은 증가하였다($\Delta R^2=.007$). 따라서 부모역할 자신감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와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가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 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 자신감이 갖는 매개효과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분석결과, Sobel test Zab 값은 2.380로 나타났다. Zab 값이 ± 1.96 보다 크거나 작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할 수 있다[40]. 따라서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와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 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 자신감의 부분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p<.01$).

$$Z_{ab} = \frac{a \times b}{\sqrt{a^2 SE_b^2 + b^2 SE_a^2}} = \frac{(.228) \times (.047)}{\sqrt{(.228)^2 (.019)^2 + (.047)^2 (.026)^2}}$$

Table 5. Sobel test Result

Route	Sobel Test(Zab)
Social parental roles and attitudes of prospective parents → Parental confidence → Childbirth plan and child rearing	2.380**

** $p<.01$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로상에 표준화 계수(β)를 제시한 연구모형은 아래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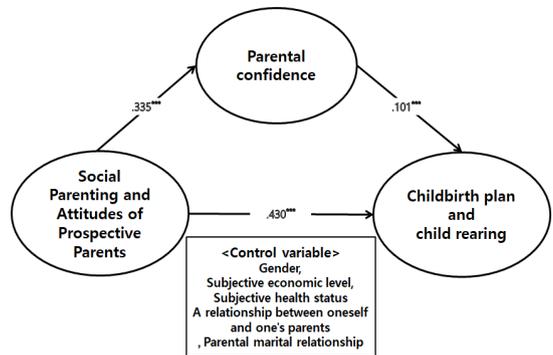


Fig. 2. Decomposition of effects of structural model variables: standardization coefficient(β)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가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 자신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연구가설 1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수준이 높을수록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 수준은 높아지며 이들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Cho & Ahn[10]의 예비부모역할과 출산 및 자녀양육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및 Je & Park[11]의 미혼남녀의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접근에서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은 결국 출산, 양육과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그 맥락을 함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예비부모가 될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예비부모역할을 확인하게 하는 작업은 중요하며, 향후 그들이 부모가 될 미래사회에 도달했을 때 결혼과 출산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전략 구축 마련에서 예비 부모로서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개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부모역할 자신감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연구가설 2가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할 자신감의 수준은 높아지며 그들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부모역할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비부모로서 사회화가 되어 부모역할태도를 잘 갖추게 된다면 부모가 되었을 때 지각하는 긴장이나 부담을 감소시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힌 연구[4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른 청소년시기부터 학교현장,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고등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여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건전한 부모상을 확립시키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의 동기화를 높여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는 예측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부모교육과 부모역할 자신감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입시 위주인 고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입시과목인 국어, 사회 분야 등에서 부모됨에 대한 일부 내용을 포함하여 여성취업과 저출산의 관계 및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 육아의 남여간 분담 등을 저변화 시켜 바람직한 부모의 사회적 역할과 태도를 익히는 인성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부모역할 자신감을 정(+의) 방향으로 매개하여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가설 3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기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부모역할 자신감을 높여,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예비부모로서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역할 자신감은 두 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비부모로서의 부모역할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자녀양육에도 어려움을 주거나 양육에 관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 [12,13] 및 긍정적인 사회화 경험을 한 부모의 태도나 높은 부모역할 자신감 수준은 자녀양육에 더 많은 참여를 한다고 밝힌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은 결국 자녀출산과 양육의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부모들의 부모역할 태도에 관한 부모교육 인식이 가장 중요하며, 청소년시기 예비부모 역할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방안이 필요하며, 미래세대 예비부모를 위한 긍정적 부모역할 수행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마련이 저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예비부모 역할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국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교현장의 현실은 입시 중심의 교과와 진로에만 초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계할 다른 계획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공교육 현실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활용방안으로는 '부모교육'이 비단 기술 가정 교과목에만 의존하기보다 도덕, 윤리, 국어, 사회, 영어 등 통합교과적인 측면에서 부모되기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교과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시청각 자료를 풍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만 연간 1회라도 재량수업이나 봉사활동점수를 활용해서 보육 시설 방문 및 교구를 활용한 실습을 이행할 수 있는 특별활동 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현대사회의 부모역할은 단순히 예비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양육 및 부모역할, 자녀관, 출산계획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관심도가 높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지식 및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는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단편적 부모교육은 큰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 즉, 세계적으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족친화적 정책이 지향되어야 하며, 현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통합 프로그램이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통제변수 중 주관적 경제수준 변수가 부모역할 자신감, 출산계획 및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경제수준이 고등학생들의 결혼, 출산 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근본적인 청소년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결혼과 출산과정 및 가족의 의미를 주체 보유나 삶의 수준에 따른 선택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여야 하고, 결혼과 출산정

책 역시 경제적 접근보다 우선적으로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에 대한 가치교육으로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주로 제한된 일부 지역의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 혹은 보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예비부모의 사회적 역할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부모역할 기능에 대한 차이 인식을 구분하지 않고 자료를 분석하였기에 후행 연구에서는 심층면담과 같은 다각도적인 연구방법과 대상별 차이 등을 감안하여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심도있는 부모역할과 인식수준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의 부모인식 및 부모역할, 출산양육 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래세대의 출산계획과 자녀양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역할 자신감이 가져다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이 미래 부모역할을 이행할 때 불안감 및 긴장감 원인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이론적 기초자료가 되어 청소년기 고등학생들이 미래의 부모역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향후 그들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유도할 뿐 아니라 부모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재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예비사회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REFERENCES

- [1] Lee, Sam-sik. (2005). Basic Directions of Population Policy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Health and Welfare Forum*, 102, 7-15.
- [2] Park, Se-kyung. (2006). Child-Rearing Cost Burden and Policy Tasks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Health and Welfare Forum*, 111, 33-49.
- [3] Nam, Jung-eun, & Jung, Jung-hee. (2013). Understanding the Low Birth Rate Problem Through Patterns of Child Rearing: An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from the Mid-1980s to the 2000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33(2), 53-78.
DOI : 10.18023/kjece.2013.33.2.003
- [4] Son, Seung-young, & Kim, Eun-jung. (2010). Understanding the Low Birth Rate Issue Through the Family Valu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Differences in Family Values Among Gender and Generational Subgroups. *Phenomenon and Perception*, 34(4), 169-200.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82497069>
- [5] Lee, Jung-won. (2009).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Subsequent Childbirth Intentions Among Employed Women With Children: Focusing on Value-Related Factors.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40(1), 323-351.
<http://dx-doi-org.libproxy.wku.ac.kr/10.16999/kasws.2009.40.1.323>
- [6] Lee, Eun-jung, Kang, Young-sik, & Park, Jung-hwan. (2012).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Prospective Parents Regarding Parental Roles and Views on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4), 1566-1573.
DOI : 10.5762/KAIS.2012.13.4.1566
- [7] Park, Mi-ra, & Je, Nam-ju. (2019).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Views on Marriage and Children, Psychosocial Maturity, and Perceptions of Social Roles as Prospective Parents on Marriage Motiv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1), 316-328.
<http://dx-doi-org.libproxy.wku.ac.kr/10.5392/JKCA.2019.19.01.316>
- [8] Wu, Pan, & Chae, Jin-young. (2022).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the Influence of Family Health on the Perception of Social Parental Role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32(4), 295-319.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9121314>
- [9] Heo, Young-lim. (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eneral Education Course on Pre-Parenting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 165-191.

-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8007434>
- [10] Cho, Eun-joo, & Ahn, Eun-sun. (2017).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on Their Perception of Prospective Parenting Rol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1), 208-217.
DOI : 10.5762/KAIS.2017.18.11.208
- [11] Je, Nam-ju, & Park, Mi-ra. (2019). Perceptions of Social Parental Roles, Educational Needs, and Preparedness Among Unmarried Men and Women: An IPA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3), 416-428.
<http://dx-doi-org.libproxy.wku.ac.kr/10.5392/JKCA.2019.19.03.416>
- [12] Kwon, Mi-kyung. (2004). A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Parenting Ro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0(4), 413-422.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3938692>
- [13] Lee, Yoon-jung. (2015). A Study on College Students' Motivation for Parenthood, Perceptions of Parenthood, and Parenting Role Confidence. *Journal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92, 1-18.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0516331>
- [14] Kim, Young-hee, Chae, Young-moon, & Shin, Hee-jung. (2007). The Impact of Family-of-Origin Emotional Climate,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Role Confidence on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During Early Childhood. *Journal of Korean Family Welfare*, 12(2), 67-87.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4057750>
- [15] Kim, Jung-mi. (2004). Development of a Pre-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3), 233-249.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75465873>
- [16] Kang, Hyun-ok, & Hwang, Hye-won. (2013). The Effectiveness of a Parenting Program for Enhancing Attachment and Interaction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and Infa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4), 433-459.
<http://dx-doi-org.libproxy.wku.ac.kr/10.13049/kfwa.2013.18.4.433>
- [17] Jeong, Mi-seon. (2010). The Impact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on Self-Esteem. *Journal of Youth Culture Forum*, 25, 140-170.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3541562>
- [18] Lee, Moon-ok, & Sim, Mi-young. (2011). A Study on Prospective Parents' Views on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and Their Perceptions of Pre-Parenting Education. *Journal of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16(4), 261-286.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3628318>
- [19] Lee, Bo-ram. (2012). A Study o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Daegu Catholic University.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T12676276>
- [20] Kim, Hye-young, & Seon, Bo-young. (2010). A Study on Women's Delayed Marriage and Low Birth Rates. *Gender Review*, 16, 84-84.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82512318>
- [21] Lee, Bo-ram, & Kim, Jeong-ok. (2012). A Study o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Focusing on Students Enrolled in the General Education Course "Marriage and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17(2), 155-175.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60239975>
- [22] Park, Jae-beom. (2020).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Perceptions of Parenthood, and Childbirth Attitudes Among the 2030 Gener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1(6), 2349-2364.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7218923>
- [23] Lee, Seong-hee, & Lee, Seung-ah. (2023). The Effects of Pre-Parenting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on Childbirth Attitudes, Parenting Beliefs, and Perceptions of Parenthood.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4(3), 1909-1923.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8641950>
- [2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 Key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Behaviors: Focused on the 2021 Family and Birth Survey Results. *Health and Welfare Forum*, 308, 35-47.
- [25] Kim, Eun-kyung, & Park, Shin-ae. (2019). A Study on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Subsequent Childbirth Plans. *Journal of Ar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nvergence Multimedia*, 9(7), 443-454.
<http://dx-doi-org.libproxy.wku.ac.kr/10.35873/ajmahs.2019.9.7.040>
- [26] Lim, Hyun-joo. (2013). A Study on Subsequent Childbirth Plans Based on Demographic, Sociological, Economic, Parenting, and Childbirth Facto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33(3), 35-58.
<http://dx-doi-org.libproxy.wku.ac.kr/10.18023/kjece.2013.33.3.002>
- [27] Lee, Jung-won, Yoo, Hae-mi, & Kim, Moon-jeong. (2014). Factors Influencing Subsequent Childbirth Plans Among Employed Mothers With One Young Child. *Journal of Childcare Policy Research*, 8(1), 47-80.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0163692>
- [28] Na, Yoo-mi, & Kim, Mi-kyung. (2012).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According to Gender and Values Among Prospective Parent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ies*, 16(2), 215-234.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4860227>
- [29] Sanderson, S & Thompson. V. L.(2002).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Sex Roles*, 46(3), 99-111.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23/A:1016569526920>
- [30]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95-305.
<https://www.jstor.org/stable/353749>
- [31] Kang, Hee-kyung. (1994).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Confidence in Parenting Among Older Mothers. *Journal of Child Studies*, 15(2), 169-180.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2953313>
- [32] Kim, Ji-shin. (1997). Social Support,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6).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75471535>
- [33] Ahn, Sook-young, Hong, Dal-a-gi, & Kim, Tae-hee. (2017).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Parental Role Confidence on Parental Rol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ome Economics*, 26(1), 1-20.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2914835>
- [34] Seo, In-kyun, & Lee, Yon-sil. (2020). The Impact of Parental Role Confidence During Adolescence on Childbirth Attitudes: The Mediating Effect of Attitudes Toward Marriag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1(3), 521-536.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6956286>
- [35] Lee, Seong-hee, & Jang, Soo-hyeon. (2022). The Effects of Pre-Parenting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 Views on Children, Infant Care Knowledge, Infant Care Confidence, and Parenting Role Confid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3(6), 4653-4666.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8408668>
- [36] Shin, Hyo-young, & Bang, Eun-ryeong. (2008). A Survey on Adolescents'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Future Youth Studies*, 5(3), 95-113.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4386920>
- [37] Shin, Hye-young. (199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Pre-Parenting Education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 [38]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39]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psycnet.apa.org/record/1987-13085-001>
- [40]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 13: 29-312.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76375386>
- [41] Lee, Sun-jeong. (2009). The Impact of Family Health and Related Variables on Perceptions of Parenthood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14(1), 243-266.
- [42] Kim, Eunseol, Choi, Yoon Kyung, & Cho, Hyejoo (2012). Pre-Parent Education for High-School. *Students and Its Improvement*. 6(1), 1-19.
<https://www-riss-kr.libproxy.wku.ac.kr/link?id=A100163727>

서인균(Inl-Kyun Seo)

[정회원]



- 2010년 2월 :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11년 3월 ~ 2023년 : 화성 의과대학교 의료복지학과 교수
- 2024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학대경험, 자살생각
- E-Mail : babybandit@hanmail.net

이연실(Yon-Sil Lee)

[정회원]



- 201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화성 의과대학교 의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탄력성, 완벽주의, 전공만족도

- E-Mail : ezup97@daum.net